

마이너서 빅리그 재도전... 고우석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

두 번의 기회를 잡긴 어렵다. 실패를 거듭한 고우석(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미국 잔류를 택한 그가 빅리그 입성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4일(한국 시간) “디트로이트 구단이 자유계약선수인 고우석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디트로이트 지역 매체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 역시 디트로이트가 불펜진을 강화를 위해 고우석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KBO리그 LG 트윈스에서 뛰며 통산 139세이브를 수확한 고우석은 지난해 1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1년, 최대 940만 달러(약 127억9000만원)에 계약해 눈길을 끌었다.

고우석은 꿈에 그리던 미국 땅을 밟았으나 MLB 개막 로스터(선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더블A에서 시즌을 맞이했다.

이후 더블A에서 평균자책점 4.38에 그친 고우석은 결국 마이애미 말린스로 트레이드 돼 계약 4개월 만에 이적했다.

마이애미에서도 시련의 나날은 이어졌다. 트리플A에서 뛴던 고우석은 팀에 합류한 지 한 달도 안 돼 방출대기(DFA·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처됐다.

고우석은 영입을 원하는 타 구단이 나타나면 이적할 수 있었지만, 끝내 제안을 받지 못했다.

마이너리그로 이관된 고우석은 더블A로 내려간 뒤 빅리그 승격 없이 시즌을 마쳤다. 트리플A와 더블A를 오간 그는 마이

샌디에이고·마이애미서 몸 담았으나 마이너리그만 전전... 빅리그 경험 無

지난 18일 마이애미서 방출 통보... 24일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



너리그 44경기에 등판해 4승 3패 4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6.54를 기록했다.

고우석은 올 시즌을 앞두고 초청 선수로 마이애미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다시 빅리그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인해 약 세 달 동안 재활에 매달렸다.

부상을 털어낸 고우석은 재활 등판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트리플A로 승격된 뒤 5경기 1홀드 평균자책점 1.59의 호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지난 18일 마이애미는 고우석에게 방출을 통보했다.

KBO리그 원소속팀 LG 복귀와 미국 잔류의 갈림길에 섰던 고우석은 디트로이트와 손을 잡으며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정

했다.

MLB 경력이 없고 검증된 투수가 아닌 고우석이 디트로이트에서도 외면을 받는다면, 빅리그 승격을 목표로 계속 뛰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빅리그행을 노려볼 수 있다.

/뉴시스



진도군, 전국 중별 럭비선수권대회 개막

총 23개팀, 약 600명이 7일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도 전두구장에서 진행

전남 진도군에서 제78회 전국 중별 럭비선수권대회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도 전두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15세 이하) 9개 팀, 고등부(18세 이하) 14개 팀이 참여해 총 23개 팀, 약 600명이 진도를 찾았다.

고등부 우승 팀과 우수선수 등에게는 대학 진학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대회이고, 예선전은 승자 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진도군에서 연이어 전국대회가 개최된 이유는 지난 3월에 개최한 ‘충무기 전국 럭비대회’에서 진도군이 기후와 체육시설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단과 응원단, 가족 등 방문객들이 대회 기간에 진도에 머물며 숙박과 음식,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진도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3억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 고용 유발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국 규모의 럭비대회가 진도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함께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강진군 출신 김재현, 국제시리즈 배드민턴 대회 ‘2관왕’ 쾌거

‘2025 북마리아나 국제시리즈’ 남북·혼복 2관왕 쾌거 세계 랭킹 상승 발판 마련

강진군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재현(24)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계의 자부심을 높였다.

강진군배드민턴협회 김강석 부회장의 아들인 김재현 선수는 계림초, 전대사대부고를 졸업하고, 2021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서 열린 ‘2025 북마리아나 국제시리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재현은 남자복식 부문에서 이상원 선수와 호흡을 맞춰 일본의 아키라 고가-나오야 가와시마 조를 세트 스코어 2-0(21-16, 21-15)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어진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김민지 선수와 짝을 이뤄 일본의 아키라 고가-유호 이마이 조를 상대로 점전 끝에 2-1(21-13, 16-21, 21-18)로 승리했다.

특히 혼합복식 결승은 세트 스코어 1-1 상황에서 맞이한 마지막 세트에서 집중력이 빛났다. 김민지의 날카로운 드롭샷과 김재현의 강한 스매시가 연이어 터지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후반에는 수비에서의 끈질긴 버티기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주관 국제시리즈 등급의 공인 대회로, 우승자에게는 세계랭킹 포인트 2,500점이 부여된다.

김재현 선수는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두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며 총 5,000점의 세계랭킹 포인트를 획득,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세계랭킹 포인트는 선수 개인의 국제 경기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이번 우승은 향후 상위 대회 참가 및 국가대표 선발 등에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은 이번 우승으로 국

제 랭킹 상승은 물론, 향후 더 큰 무대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김재현 선수의 이번 성과를 지역 스포츠 육성 정책의 결실로 평가하며, 배드민턴을 포함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지역 출신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낸 것은 군민 모두의 자랑”이라며 “김재현 선수와 같은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체육 환경 개선과 유소년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토트넘 주장 손흥민, 다음 시즌 거취 관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이 잔류와 이적의 갈림길에 섰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토트넘홋스퍼뉴스’는 지난 25일(한국 시간) “올여름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든 떠나든 가장 주목받을 선수”라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그는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손흥민은 한국 프리시

즌 투어에 출전할 예정이며, 단 한 경기만으로 토트넘에 100만 파운드(약 19억원) 이상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트넘이 방한 전 손흥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토트넘 팬사이트 ‘윌리화이트로즈’ 운영자 존 웨넌은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 5000만 파운드(약 927억원)에서 6000만 파운드(약 1113억원), 다른 곳으로 가면 3000만 파운드(약 556억

원)를 토트넘에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좋은 제안이 온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한국에서 열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흥민은 이달 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최종 10차전 이후 이적설과 관련된 질문에 “일단은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단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커뮤니티	쾌적한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행 운암 3단지 재건축중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주)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